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내셔널 Save the Children International

Australia 호주	Finland 핀란드	Italy 이탈리아	New Zealand 뉴질랜드	United Kingdom 영국
Brazil 브라질	Germany 독일	Japan 일본	Norway 노르웨이	United States 미국
Canada 캐나다	Guatemala 과테말라	Jordan 요르단	Romania 루마니아	
Denmark 덴마크	Honduras 온두라스	Korea 대한민국	Spain 스페인	
Dominican Republic 도미니카공화국	Hong Kong 홍콩	Lithuania 리투아니아	Swaziland 스와질란드	
Fiji 피지	Iceland 아이슬란드	Mexico 멕시코	Sweden 스웨덴	
	India 인도	Netherlands 네덜란드	Switzerland 스위스	

세이브더칠드런 국내사업장 Save the Children Korea Regional Offices

본부 t.02 6900 4400 f.02 6900 4499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74	대구지부 t.053 625 1600 f.053 625 0102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동 999-9	영리청소년독서실 t.02 701 9240 f.02 719 68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리동 36-3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 t.032 434 1391 f.032 439 1391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899 (주6동 969-2)	수서민들레어린이집 t.02 3412 7979 f.02 451 9421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23
경기지부_부천 t.032 655 1391 f.032 612 6337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31-14, 3층	울산지부 t.052 245 1391 f.052 245 139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399-7	홍은청소년공부방 t.02 391 4031 f.02 391 402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1동 11-370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 t.052 245 1391 f.052 245 139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399-7	양천신나는어린이집 t.02 2642 6963 f.02 2645 4248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7동 330-13
경기지부_안산 t.031 483 3406 f.031 402 014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3-2, 트윈타워 A동 203호	부산지부 t.051 758 8802 f.051 752 8810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 192번길 20-33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t.02 796 1406 f.02 790 7266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74, 2층	중양가정위탁지원센터 t.02 796 1406 f.02 790 7266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74, 2층	은화어린이집 t.02 391 3248 f.02 379 905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산1-552
인천지부 t.032 434 1391 f.032 439 1391 인천광역시 남구 주인6동 969-2	수서종합사회복지관 t.02 459 5504 f.02 451 9421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23	전북새움지역아동센터 t.063 241 1171 f.063 254 363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727-59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 t.051 758 8801 f.051 752 8810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2동 403-13	한별어린이집 t.02 569 8711 f.02 445 87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1동 149-11
대전지부 t.042 826 0161 f.042 826 0163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480-4 승현빌딩 301호	백양종합사회복지관 t.051 305 4286 f.051 305 3048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 192번길 20-33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t.02 422 1391 f.02 3143 1392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74, 3층	노을어린이집 t.02 305 9880 f.02 305 9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74 월드컵아파트 805동 1층	백양민들레어린이집 t.051 305 3223 f.051 302 5020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 192번길 20-33
전북지부 t.063 254 1177 f.063 254 363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727-59	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 t.031 421 6100 f.032 421 61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26-3 인천사회복지회관 201호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t.032 662 2580 f.032 612 6337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31-14, 3층	서대문구청직장어린이집 t.02 323 3360 f.02 322 33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43-1	마포신나는그림홈 부천신나는그림홈 안산신나는그림홈 인천아동센터 울산신나는아동센터 부산신나는그림홈
	망원청소년독서실 t.02 332 2517 f.02 337 447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2동 451-1	경기안산아동보호전문기관 t.031 402 0442 f.031 402 014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3-2, 트윈타워 A동 203호		



2010 Annual Report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일하는 세이브더칠드런의 2010년 연차보고서입니다.



Contents

- 04 세이브더칠드런 소개
- 05 인사말
- 06 2010년 주요행사 및 활동
 - 아동권리 교육 및 옹호
 - 아동발달 및 교육
 - 아동보호
 - 다문화 가정 아동지원
 - 아동보건의료
 - 국제개발
 - 긴급구호
- 30 재정보고
- 32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한 사람들
- 34 세이브칠드런 후원자: 개인/단체/기업

04 Who We Are: Save the Children

05 Letter

06 Highlights of 2010

- Child Rights Advocacy
- Child Development & Education
- Child Protection
- Multicultural Empowerment
- Child Health & Medical Support
- International Development
- Emergency Response

30 Financial Report

32 People of the Year

34 Supporters : Individual/Group/Corporation

Save the Children

세이브더칠드런은 1919년 영국의 예글렌타인 젠티(Eglantyne Jebb, 1876~1928) 여사가 창립한 국제 아동구호개발 NGO로서 29개 회원국이 전 세계 120여 개 사업장에서 국적, 종교, 인종,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953년 세이브더칠드런 영국, 미국, 스웨덴 등이 한국전쟁 뒤 긴급구호 사업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대한민국은 1981년 수혜국에서 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 지부, 28개 사업장과 해외 13개 사업장에서 아동권리옹호, 아동보호, 보건의료, 아동교육 및 발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개발사업, 긴급구호 및 대북지원사업을 통해 국내외 아동의 삶에 즉각적이며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Save the Children is the world's leading independent organization for children. 29 national members are working together in more than 120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protect the children's rights to survival, protection, development and participation regardless race, religion, nationality or political ideology.

Save the Children 2010 Annual Report

발행일 2011년 4월 15일 발행처 세이브더칠드런 발행인 이상대 편집인 김노보 기획 및 진행 커뮤니케이션팀 주소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174 전화 02-6900-4400 팩스 02-6900-4499

편집 및 디자인 plus81 studios 02-542-0810 인쇄 팩컴코리아 표지사진 방글라데시(Bangladesh) 쿨나(Khulna)지역 사크비리아(Sakhibariya)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쉬스 사카르(Ashis Sarkar, 5세), 사이클론으로 무너진 학교는 세이브더칠드런에 의해 재건되었다. © GMB Akash/Panos Pictures.

2010년 1월 발생한 아이티(Haiti) 대지진 이후 세이브더칠드런은 진앙지인 레오강(Léogâne)에 재난대비 건축기술로 아벨라르 학교(The Institut Abellard)를 세웠다. 아동들은 지진 이후 다시 안전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 Save the Children

OUR VISION

is a world in which every child attains the right to survival, protection, development and participation

우리는 모든 아동이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세상을 꿈꿉니다.

OUR MISSION

is to inspire breakthroughs in the way the world treats children, and to achieve immediate and lasting change in their lives.

우리는 전 세계 아동을 위한 혁신적 해결책을 제시하며, 아동의 삶에 즉각적이고도 지속적인 변화를 이룹니다.

OUR VALUES

책임감	ACCOUNTABILITY	우리 각각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측정 가능한 성과를 달성토록 하며, 후원자들과 협력단체 그리고 무엇보다 아동에 대해 책임을 다합니다.
포부	AMBITION	우리는 스스로와 동료들이 높은 목표를 가지도록 요구하고, 아동을 위한 모든 활동의 질적 향상에 전념합니다.
협력	COLLABORATION	우리는 아동을 위한 변화를 창출하는데 있어 우리의 강점인 국제적 네트워크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서로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협력단체들과 함께 일합니다.
창의	CREATIVITY	우리는 아동을 위하고 아동과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생각에 열려있으며, 변화를 받아들이고 또한 훈련된 방식의 모험을 감수합니다.
정직	INTEGRITY	우리는 각자 가장 높은 수준의 정직성과 품행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평판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항상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행동합니다.

“굶주림을 물리치자!”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9년 5월, 세이브더칠드런의 창립자 에글랜타인 켈(Eglantyne Jebb, 1876~1928) 여사는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기아에 시달리는 오스트리아 어린이의 상황을 설명한 “굶주림을 물리치자!(Fight the Famine)”라는 제목의 전단을 나누어준 것이 체포의 이유였습니다. 며칠 뒤 열린 재판에서 그녀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벌금으로 선고된 금액은 단지 5파운드. 재판이 끝난 뒤 검찰은 그녀의 뜻에 공감해 5파운드를 상징적으로 기부했고, 그것이 세이브더칠드런의 첫 기금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Deepest Appreciation from Chairman of the Board & CEO

지난 2010년 한 해에도 변함없이 전 세계 아동과 그 가족들을 위한 세이브더칠드런의 노력에 힘을 보태어주신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과 관용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후원자님의 지원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은 각 아동과 함께 배우고 모든 아동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캠페인과 사업을 시도하여 후원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연초부터 발생한 아이티 지진은 재난상황에 처한 아동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우려는 후원자님의 뜨거운 성원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 년 여의 모금기간 동안 10억 원의 긴급구호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이는 세이브더칠드런의 신속한 대응과 지속적인 장기복구사업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빈곤아동 성장발달을 위한 통합지원사업, Change the Future를 야심차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문가의 자문을 기반으로 그간의 국내 사업에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실현시키려는 노력을 더욱 잇는 것입니다. 2008년부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작한 다문화 사업 역시 2010년도에는 그 대상을 확대하여 유아에게도 이중언어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삼일투명경영대상에서 우수한 비영리기관으로 인정받아 대상의 영예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이러한 노력과 시도를 실현시켜주신 후원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은 전 세계의 모든 세이브더칠드런 회원국이 더 강력한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발걸음을 떼는 해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또 정치적 변혁과 분쟁으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서는 아직도 어린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 세이브더칠드런 가족이 어린이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일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나아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이상대 세이브더칠드런 회장 김수민

세이브더칠드런 이사 및 감사 2010. 12. 31 기준, 가나다순
이사장 이상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 **이사** 김용규 외교협회 회장 · 前 외교부 대사, 박영관 세종병원 이사장, 배병관 前 코엑스 대표이사, 서동만 서울아산병원 선천성심장병센터 소장, 신기옥 이주산업(주) 대표이사, 안병광 (주)유니온팜 대표이사, 이시원 (주)부천대표이사, 이인식 (재)한국여성경제진흥원 원장, 이홍윤 공주영상정보대학 교수 · 前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실장, 전복수 한국방송공사 보도본부 해설위원 / **감사** 이종철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 **자문위원** 김재현 前 세이브더칠드런 부이사장 / **법률고문** 현천옥 김 ·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0년 주요행사 및 활동 Highlights of 2010

January

만 18세 미만의 외국국적 아동 중 미숙아, 선천성기형, 기타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이주아동 의료비 지원사업을 정규사업으로 시작
'Migrant Children Health Care Support' was launched to assure preterm infant, children with congenital abnormalities or complicated diseases of financial aid.

아이티 지진피해로 인한 긴급구호 발령. 진도 7.0의 강진으로 23만 명이 사망하고 200만 여 명의 난민이 발생한 가운데 세이브더칠드런은 지진발생 1년이 지난 지금까지 48만 명의 어린이를 포함 87만 명에게 식량, 보건의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고 있음

Haiti Earthquake Emergency was declared. 230,000 deaths and 2 million displaced have been reported due to the 7.0 magnitude earthquake. Save the Children is responding with the Food, Water, Health, Protection and Education programs and more than 870,000 disaster affected people including 480,000 children were benefited throughout the year so far.

안산그룹홈 개소

Ansan Group Home was open.



February

코트디부아르 코코아 농장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31만 2,000 명의 아동들에게 빼앗긴 교육의 기회를 되찾아 주기 위해 '착한 초콜릿' 캠페인 진행

'Fair Chocolate', the annual campaign was launched for 312,000 children suffering from child labour in cocoa farms in Côte d'Ivoire, whose rights to access to education should be protected.

3 March

빈곤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통합지원 사업 'Change the Future' 시작

'Change the Future', the integrated development program was launched for domestic children in low income families.

갑작스러운 생계의 어려움에 처해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 대상의 아동긴급지원사업 시작

'Urgent Support for Children Program' was started to provide immediate financial support for children with sudden difficulties in their living.

2009년 10월부터 진행한 '신생아살리기 모자뜨기캠페인 시즌3' 종료! 4만 422명이 참여하여 뜬 모자 9만 3,444개를 아프리카 말리에 전달

'Knit a Cap Campaign Season3'(started from October 2009) was completed. 93,444 knitted baby caps were delivered to Save the Children Sahel Country Office in Mali, with the help of 40,422 participants.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전 세계 아동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이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기부하는 '아동을 살리는 선물가게' 오픈

'Wishlist' campaign for supporters to donate essential kits or programs for international children in need.



4 April

서울과 안산 지역에서 5~7세의 몽골, 중국, 베트남 문화권 아동을 대상으로 '유아 이중언어 지원사업' 시작

Early Childhood Multilingual Education for children aged 5 to 7 under Mongolian, Chinese, and Vietnamese culture in the area of Seoul and Ansan, was launched.

우즈베키스탄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지부 등록 완료

Save the Children Korea Office in Uzbekistan was successfully registered.

말라리아의 날을 기념, '5세 미만 영유아를 살리는 말라리아 게임' 런칭과 함께 모기장 보내기 캠페인 전개

'World Malaria Day', Save the Children launched 'Sending Net Campaign' with online game of 'Saving lives of children under 5' was celebrated.



5 May

분쟁지역 친구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기원하며 희망의 그림을 그리는 '제 3회 월드키즈컬러링데이(WKCD)' 개최

'The 3rd World's Kids Colouring Day' was held. Children gathered and drew their wishes of equal education opportunity for children in conflict affected areas.

"장기간 계속된 식량 위기와 가뭄으로 인해 37만 8,000명이 기아의 위험에 놓여 있으며, 120만 명의 아동이 영양실조로 고통 받고 있다"고 경고, 니제르 식량위기 긴급구호 발령

Emergency of Niger Food Crisis was declared. Due to poor rainfall, food shortage and dramatic pastoral crisis, 378,000 people faced hunger and 1.2 million children suffered malnutrition.

1기 대학생 아동권리전문가그룹 활동 시작

The first 'Young Saver: Child Rights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started their activities.

SBS 희망TV 봄 편 방송, 긴급구호지역 아이티 아동들을 위한 모금

SBS Hope (Direct) TV broadcasted programs for spring season and fundraising for Haiti emergency was made.

한별어린이집 위탁

Hanbyol Child Day Care Center was open for services.

6 June

아동들의 권리인식 증진과 권리에 대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찾아가는 아동권리학교' 시작

'Child Rights School' started enhancing the awareness on Child Rights and listening to children's voice.



7 July

방글라데시 라즈바리(Rajbari) 영유아개발센터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enter) 완공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enter in Rajbari, Bangladesh was set up.

손 안에서 만나는 세이브더칠드런, 모바일웹 런칭
Save the Children mobile web was launched, which enables mobile phone users to access Save the Children homepage via their phones.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
National Foster Care center was open.

8 August

대홍수로 인해 2,00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파키스탄에 긴급구호 발령

Pakistan Monsoon Floods Emergency was declared. 20 million people were reported to be affected by massive flooding across Pakistan's four provinces.

F2F 센터 출범
Face to Face center was open.



9 September

식량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니제르의 생계지원을 위한 '아프리카 염소보내기 희망릴레이 캠페인' 시작

'Hopeful Relay Campaign for Sending Red Goats' was launched to support Niger livelihood.

대전지부 개소
Daejeon Branch Office was open.



10 October

'신생아살리기 모자뜨기캠페인 시즌4' 시작
'Knit a Cap Campaign Season4' was launched.

SBS 희망TV 가을 편 방송, 중증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는 니제르의 아동 지원

SBS Hope (Direct) TV broadcasted programs for autumn season and fundraising for Niger emergency was made.



11 November

G20 정상들에게 보내는 학생들의 엽서 전달식,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죽어가는, 전 세계 5세 미만 영유아를 살리고자 3,000 여 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세계 정상들에게 쓴 엽서를 G20 준비위원회에 전달

More than 3,000 students handed over postcards to G20 summits calling for the immediate action for children under 5 who die of preventable and treatable diseases.

기빙클럽 프로젝트 '히말라야 산타 1기' 6월부터 약 5개월 동안 모금활동을 전개, 네팔 아동들에게 선물하는 학교건립을 위해 네팔에 직접 방문

The 1st Himalaya Santa in line with Giving Club project visited Nepal and helped constructing a school for children. The members raised pertaining funds for 5 months from June.

체험이 가능한 '신생아살리기 모자뜨기캠페인' 어플리케이션 출시

'Knit a Cap' application for smart phone users was launched.

12 December

아동친화적 환경에서 아동권리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대구입석지역아동센터 개소

Daegu Ipseok Community Child Day Care center was open to provide Child Rights based programs in child friendly spaces.

파워맘이블로거 15인과 함께하는 EVERY ONE 캠페인 3만 서명운동 시작

Petitions and 30,000 signatures gathering for EVERY ONE Campaign started with 15 power mommy bloggers.

아프리카와 한국의 엄마들이 함께하는 'Hi! Five! 아프리카 특별한 송년파티' 진행

A special year-end party 'Hi! Five! Africa' with mothers from Korea and Africa was held.

아동권리에 기반한 '어린이집' 실천사례 모음집 발간

Publication of the 'Child Rights based Best Practice for Child Day Care center'





Child Rights Advocacy

아동권리교육 및 옹호

2010년은 대한민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의견표현의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내는 최초의 아동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죽어가는 전 세계 5세미만 영유아들의 생존권 증진을 위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G20정상들에게 전달했습니다.

2010년 아동권리옹호 사업에 총 211,669,543원의 기금을 사용하였습니다.

20 years have been passed since the Republic of Korea ratifi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 CRC).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12 (Right to express), Save the Children Korea submitted the first report of Korean children to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2010. Petition to advocate low-tech and affordable solutions to prevent under-five mortality rate was also submitted to G20 representatives.

A total of KRW 211,669,543 was spent on 2010 Child Rights Governance and Advocacy programs.



찾아가는 아동권리놀이학교에 참여하여 저개발국 아동들의 생존권리를 배우고 있는 아동들

아동권리모니터링 “찾아가는 아동권리놀이학교”

Monitoring Program: Child Rights School

대한민국 아동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양육시설아동, 탈북아동, 다문화가정아동, 농촌지역아동 등 여러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을 찾아가서 권리를 교육하고 권리가 지켜지는 현실을 파악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여 대한민국 최초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아동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아동권리교육 및 긍정적인 훈육 교육

Child Right Education and Positive Discipline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옹호할 임무가 있는 공무원, 부모, 교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 1,485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아동권리를 실천할 수 있는 긍정적인 훈육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아동주도형 참여프로그램

Child-led Participatory Programs

서울 경인지역 5개 지역의 아이들이 모여 스스로 주제를 선택하고 아동권리를 지키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인천에서는 부모의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아동의 평등권을 주장하는 캠페인을, 수서에서는 지역의 수비대가 되어 아동권리침해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대학생 아동권리전문가그룹

Young Saver: Child Rights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대학생들이 아동권리증진을 위해 제 1기 대학생 아동권리전문가그룹으로 모였습니다. 총 30여명의 대학생들이 자신의 열정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팀, 모니터링팀, 옹호팀으로 나뉘어 아동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옹호캠페인과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했습니다.

‘EVERY ONE’ 캠페인 및 세계시민교육

EVERY ONE campaign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지구촌 5세 미만 영유아 살리기 캠페인 ‘EVERY ONE’ 과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1만여 명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G20서울 정상회의에서 ‘5세 미만 영유아의 생존권’ 이 주요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 아동들이 세계 정상들에게 쓴 엽서 3,000여 장을 G20준비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찾아낸다 | ‘서울 망원동 동네탐정단’ 이야기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주도형 참여프로그램인 망원동의 ‘동네탐정단’ 은 심사과정부터 남달랐습니다. 아이들은 범인의 인상착의를 몽타주로 그리는 관찰력 테스트와 쓰레기봉투 속을 뒤지며 단서를 찾아내는 미션수행 테스트를 거쳐 동네탐정단 아카데미과정에 입문했습니다. 아이들은 동네놀이터에서 유리 조각 등 수 많은 단서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놀이터의 실태에 놀라기도 했으며, 동네 곳곳에서 수상한 문물을 찾아 그 용도를 추리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4개월의 과정을 거쳐 드디어 망원동 동네탐정단 이 창단되었고, 그 후에도 아간탐사와 탐정캠프 등을 진행했습니다. 동네탐정단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왜?”라는 호기심을 넘어 나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Child Development & Education

아동발달 및 교육

세이브더칠드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위한 영양 / 건강, 학습 / 문화, 심리 / 정서지원 등 아동발달과 교육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27조는 모든 아동이 신체적 · 지적 · 정신적 · 도덕적 · 사회적 발달에 맞는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2010년 아동발달 및 교육 사업에 총 11,281,364,966원의 기금을 사용하였습니다.

Save the Children stands up for children who are suffered from economical challenges by creating lasting changes in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such as nutrition/health, education/culture, emotional/psychological support program.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The Article 27) has admitted that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every child to a standard of living adequate for the child's physical, mental, spiritual, moral and social development. A total of KRW 11,281,364,966 was spent on the Child Development & Education program in 2010.



방과후 전복 새움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지도를 받는 민기(가명)

저소득 · 맞벌이가정 영유아 보육

Early Childhood Education

저소득 · 맞벌이가정 아동이 아동권리에 기반한 창의적이고 질 높은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과 부산에 소재한 7개의 어린이집에서 바른생활교육, 권리교육, 문화체험, 부모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사업비 3,406,595,865원 / 참여아동 567명 / 권리교육 3,284건

Expenses KRW 3,406,595,865 / Beneficiaries 567 / Education on Rights 3,284 classes

저소득 아동청소년 및 가족지원사업

Adolescence and Family Support

아동과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국 7개 사회복지시설에서 학습지원, 멘토링, 문화체험, 가족캠프, 권리교육 및 아동자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사업비 5,159,248,917원 / 참여아동 10,370명 / 권리교육 8,301건

Expenses KRW 5,159,248,917 / Beneficiaries 10,370 / Education on Rights 8,301 classes

국내아동결연사업

Domestic Individual Child Sponsorship

기업과 개인의 후원으로 국내 만 18세 미만 저소득 빈곤가정 및 조손가정 아동, 피학대 아동에게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등을 매월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후원자와 결연아동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지원을 통해 아동의 심리와 정서적 지지체계를 마련,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 1,309,048,000원 / 결연아동 1,015명 / 지원건수 16,854건

Expenses KRW 1,309,048,000 / Sponsored 1,015 / Related services for 16,854 children

착한 도시락-영양 밥상

Happy Lunchbox - Nutrition Program

1~7월 동안 전북지역의 10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아동들에게 식식과 간식을 지원했고, 3회의 영양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저학년 아동 부모의 99%, 고학년 아동 부모 94%, 고학년 아동 92.1%가 제공된 전반적 급식 서비스 수준(식단, 양, 급식 시간, 식재료의 질 등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빈곤아동실태조사 결과(보건복지부, 2008)와의 비교 시 본 사업 대상 아동의 영양 섭취 정도 및 식습관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아동 평균에 비해 매일의 야채섭취도가 높고, 낮은 인스턴트 섭취도 등 전반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본 사업이 아동의 신체적 건강과 식습관을 개선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업비 86,473,040원 / 참여아동 212명 / 지원건수 1,850건

Expenses KRW 86,473,040 / Beneficiaries 212 / Related services for 1,850 children



86,473,040

2010년 세이브더칠드런 10개의 지역아동센터에 '착한도시락' 사업으로 86,473,040원을 사용했습니다.



Change the Future에 참여하고 있는 안산 책키북키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야외체육활동

Change the Future(빈곤아동 성장발달을 위한 통합지원 사업)

Change the Future: Integrated Development Program 빈곤가정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 산하지부를 중심으로 각 지역사회 37개 지역아동센터와 네트워킹을 통해 아동의 영양 및 건강은 물론 아동권리, 교육, 문화지원, 환경개선 등의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사업비 1,009,838,590원 / 참여아동 1,330명 / 지원건수 46,600건
Expenses KRW 1,009,838,590 / Beneficiaries 1,330 / Related services for 46,600 children

아동긴급지원사업

Urgent Support for Children

갑작스런 위기상황이 발생한 아동의 가정에 긴급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공과금 등을 지원했고, 생계수단 및 외부지원이 없는 국내 거주 난민아동 및 그 가족에게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했습니다. 긴급지원을 통해 아동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긴급지원 사업비 12,280,000원 / 참여아동 9명
난민아동지원 사업비 25,000,000원 / 참여아동 20명 / 지원건수 105건
Expenses on Urgent Support KRW 12,280,000 / Beneficiaries 9
Expenses on Migrant Children Support KRW 25,000,000 / Beneficiaries 20 / Related services for 105 children

산업시찰캠프 '2010 내 꿈을 찾아서'

Technical Visit Camp: Searching for My Dreams

7월 28~30일 산업은행 장학생 42명과 함께 산업시찰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금융, 전기, 식품, 패션 등 각 산업을 대표하는 국내 우수 기업을 방문하고, 미래 설계 워크숍, 리더십 교육, 직업체험 및 문화체험 등을 통해 청소년기 아동들이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사업비 13,029,130원 / 참여아동 42명
Expenses KRW 13,029,130 / Beneficiaries 42

분교지원사업

Education Program for Rural Communities

분교 학생들의 문화적, 교육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GS SHOP의 후원으로 청룡초 장교분교 등 전국 10개 분교에 미니도서관 '희망나무도서관'을 지원하였고, 동부생명의 후원으로 강원도 서석초 향곡분교의 방과 후 교실 환경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비 97,798,904원 / 참여아동 439명
Expenses KRW 97,798,904 / Beneficiaries 439

BC TOP 기부 지원

Financial Support with BC Credit Card

BC카드와 함께 온라인 모금을 진행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가정 아동에게 생활비, 주거안정비, 교육비 등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아동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후원했습니다.

사업비 18,196,605원 / 참여아동 10명
Expenses KRW 18,196,605 / Beneficiaries 10

교통사고유자녀 소원수행 '세잎클로버 찾기'

Dreams Come True with Hyundai Motors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사망 또는 중증 이상의 후유증을 갖게 된 가정의 아동 소원을 들어주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후원으로 전국 397명의 아동에게 '행복물품, 행복비용, 행복활동'으로 나누어 지원했습니다.

사업비 487,492,731원 / 참여아동 397명
Expenses KRW 487,492,731 / Beneficiaries 397

487,492,000

2010년 세이브더칠드런은 교통사고유자녀 소원수행 프로그램인 '세잎클로버 찾기' 사업에 487,492,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꿈을 키우는 공간 태희 이야기

오즘 태희(가명, 12세)는 생글생글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지역아동센터 때문입니다. 태희는 학교수업이 끝나면 바로 여동생과 함께 빨간 지붕의 지역아동센터로 달려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녁 늦게 집에 오시고, 할머니는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십니다. 책을 좋아하는 태희는 곧장 센터 1층에 있는 어린이독서실로 달려가 책을 읽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달리 학원에 다니지 않지만, 태희는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태희는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을 대신해 알려 주기도 합니다. 공부 외에도 실내체육, 수영, 태권댄스, 북아트, 퀴즈대회, 전래놀이, 자치회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어 태희는 아동센터가 참으로 좋습니다. 태희는 꿈이 많습니다. 의사, 판사, 변호사, 파티쉐, 사회복지사, 가수, 만화가... 아직 어떤 사람이 될 지 결정하지 못했지만,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태희는 자신이 꿈을 키우는 공간을 후원해주는 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동센터에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제가 커서 꿈을 이룬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Child Protection

아동보호

세이브더칠드런은 가족해체, 가정불화와 학대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의 많은 아동들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 가정위탁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는 아동이 부모나 법정 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 학대, 유기, 방임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아동보호 사업에 총 3,169,524,000원의 기금을 사용하였습니다.

Save the Children has been helping many children who are affected on a physical, psychological and economical level owing to factors such as family breakup, family discord, and abuse through prevention of and response to abuse and operation of foster care program.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The Article 19) states that children should be properly cared for and protected from violence, abuse and neglect from their parents, or anyone else who looks after them.

A total of KRW 3,169,524,000 was spent on the Child Protection program in 2010.



아동학대 예방치료사업

Prevention of Child Abuse

서울 마포, 인천, 부천, 안산, 울산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치료와 전문 상담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아동이 학대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사업비 2,581,346,123원 / 참여아동 1,441명 / 권리교육 101,981건

Expenses KRW 2,581,346,123 / Beneficiaries 1,441 / Education on Rights for 101,981 children



862,274,272

2010년 세이브더칠드런은

가정위탁 지원사업에

862,274,272원을 사용했습니다.

가정위탁 지원사업

Foster Care Program

부모의 사망, 질병, 실직, 수감,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위탁가정을 발굴하여 연계하고, 위탁아동의 교육과 자립 준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중앙가정위탁지원 센터를 통해 전국 17개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총괄 관리·지원하는 동시에 부산지역 위탁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교육과 자립 준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 862,274,272원 / 참여아동 966명

Expenses KRW 862,274,272 / Beneficiaries 966

꿈을 향해 한걸음 “제 꿈은요...” | 현수 이야기

부모님이 이혼한 후, 현수(가명, 18세)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술때문에 몸이 아파 아들을 돌볼 수 없었고, 잠시 그룹홈에서 머물던 현수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새 가족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또 다른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이 있어 든든했습니다. 그사이 아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힘들기도 했지만, 지금의 가족이 있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과 즐겁게 생활하며 현수는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현수는 세이브더칠드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조리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전교 1등도 하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현수는 호텔 일류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현수는 이제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더욱 멋지게 날개를 펴보고 싶습니다.





Multicultural Empowerment

다문화 가정 아동지원

세이브더칠드런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일원으로 자리매김한 다문화가정 아동 지원을 통해 아동들이 학교 및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적절한 교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제29조, 제30조는 모든 아동이 인종, 피부색, 사회적 출신, 태생에 상관없이 권리존중, 교육의 혜택, 언어와 고유문화의 향유의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다문화가정아동지원 사업에 총 467,380,286원의 기금을 사용하였습니다.

Save the Children has been making efforts in providing child friendly environment that gives education as well as child protection for the children in familie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The Article 2, 29, and 30) recognizes that every child has the right to enjoy the respect of the right, benefit of education, and languages and unique culture regardless their race, skin color, social origin, and parentage.

A total of KRW 467,380,286 was spent on the Multicultural Empowerment program in 2010.



하나토요베트남학교에서 베트남요리활동에 참여하는 아동들

유아 이중언어지원사업 한국어수업을 받는 사론의 집 아동들



유아 이중언어지원사업

Early Childhood Multilingual Education

서울, 경기 총 11개 기관에서 5~7세의 몽골, 중국, 베트남 문화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엄마 나라의 언어 수업을 함께 진행하고, 월 1회 이상 어머니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문화권 향유를 통해 아동의 정체성 확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언어 교육 시 어머니가 함께 참여하여 모자간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지원서비스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주변 인식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 98,990,643원 / 참여아동 104명
Expenses KRW 98,990,643 / Beneficiaries 104



하나 키즈오브아시아

Hana Kids of Asia

하나금융그룹의 후원으로 매주 토요일 '하나토요베트남학교'를 운영하고, 다문화 가정 아동의 심리 정서를 지원하는 '아동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서울, 안산, 인천에 거주하는 베트남 다문화 가정 아동에게 어머니 나라의 말과 문화를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한 정체성을 갖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 271,838,803원 / 참여아동 60명
Expenses KRW 271,838,803 / Beneficiaries 60

“한국, 베트남 모두 중요해요.” 예림이 이야기

예림이(가명)는 올해 7살입니다. 예림이의 엄마는 2000년에 한국인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예림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면 엄마에게 ‘한국말로 이야기 하자.’고 조르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모두 한국어로 얘기하는데, 엄마하고만 베트남어로 말하다 보니 답답했답니다. 예림이에게 엄마의 나라 베트남과 베트남어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엄마가 원하기 때문에 베트남어를 써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이브더칠드런의 ‘이중언어지원서비스’를 받으면서 예림이는 ‘한국어와 베트남어가 모두 중요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림이 어머니는 ‘예림이가 요즘엔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장소에 관계없이, 거리낌 없이 사용한다.’면서 ‘예림이가 많이 변화했다.’고 기뻐합니다. 이중언어 서비스 후 예림이는 엄마와 더욱 친해졌고, 엄마의 나라 베트남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Child Health & Medical Support

아동보건의료

세이브더칠드런은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내외 아동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며, 의료환경이 열악한 저개발국의 아동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무료 수술 혹은 한국 의료진이 현지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개발국의 의료 선진화를 위해 현지의료진을 대상으로 연수 사업을 실시, 국내의 선진의료 기술을 전수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는 아동이 최상의 건강수준을 유지하고 질병치료 및 건강회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아동보건의료 사업에 총 1,619,734,241원의 기금을 사용하였습니다.

Save the Children has been supporting medical expenses for the children from low income families in home and foreign countries. Children from less developed countries have been invited to Korea for free surgery. The Korean medical team has also conducted surgery in the field sites. There has been training for medical team invited to Korea in order to provide advanced medical technology.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The Article 24) defines that children has the right to keep the best possible health condition as well as to use health care facility for disease recovery.

A total of KRW1,619,734,241 was spent on the Child Health & Medical Support program in 2010.

놀면서 치료해요

주원이의 정서치료 이야기

다문화 가정(어머니 일본인)에서 양육되고 있던 주원이(가명, 9세)는 때때 친구들과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발음이 부정확하고, 주의가 산만하여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정서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이브더칠드런이 지원하는 심리정서장애 아동 놀이치료와 치료사와의 차분한 상담치료를 통해 집중과 몰입의 시간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주원이의 어머니 역시 상담을 통해 본인의 어려움과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고, 상담 후 다문화센터와 교회 등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자녀 양육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 아동 의료비 지원

Domestic Medical and Surgical Cost Support

선천성기형(선천성심장기형 포함), 척추측만증(교정기 포함), 희귀난치 및 소아암, 기타 소아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게 입원 및 수술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사업비 827,191,233원 / 참여아동 213명
Expenses KRW 827,191,233 / Beneficiaries 213

소액의료비 지원

Micro Medical Cost Support

가천의대길병원 외 전국 29개 지역거점병원과 협력해 각종 소아질환 확진 검사비, 외래 및 100만 원 이하의 입원 및 수술 치료비가 필요한 저소득 가정의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사업비 203,750,000원 / 참여아동 324명
Expenses KRW 203,750,000 / Beneficiaries 324

이주아동 의료비 지원

Migrant Children Health Care Support

국내 거주 만 18세 미만의 외국 국적(등록, 미등록, 난민자격 포함)아동 중 입원 및 수술치료비가 필요한 미숙아, 선천성 기형, 기타 질환(폐렴, 패혈증 등)을 앓고 있는 아동에게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사업비 104,446,160원 / 참여아동 41명
Expenses KRW 104,446,160 / Beneficiaries 41

저소득층 심리정서장애아동 심리치료 지원

Psychosocial Support

심리, 정서적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 대상, 전국 8개 산하시설에서 심리평가 및 치료를 실시했습니다. 전문적 치료를 위해 사례회의 강화, 치료사의 외부수퍼비전비용 지원 등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사업비 137,158,910원 / 참여아동 110명
Expenses KRW 137,158,910 / Beneficiaries 110

해외 선천성심장병 아동 현지 및 초청 수술

Overseas Children Surgery Support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부천세종병원, 서울아산병원과 협력해 중국 하얼빈, 우즈베키스탄에서 현지 수술을 진행했으며, 캄보디아·몽골·파키스탄 등에서 심장병 아동을 초청해 심장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사업비 239,759,159원 / 참여아동 지원건수 47명
Expenses KRW 239,759,159 / Beneficiaries 47

해외 의료진 연수사업

Overseas Health Worker Training

라오스, 우즈베키스탄의 소아심장 관련 의료진을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연세대세브란스병원으로 초청하여 의료진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연수 의료진은 본국으로 돌아가 현지 의료진만으로 소아심장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사업비 20,462,266원 / 참여인원 9명
Expenses KRW 20,462,266 / Beneficiaries 9

해외 의료진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 라오스 의료진





International Development

국제개발

세이브칠드런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서 위기 취약아동을 위한 기초보건사업, 교육사업, 결연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2조는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여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국제개발 사업에 총 6,287,129,248원의 기금을 사용하였습니다.

Save the Children Korea is working and mainly focusing on Primary Health Care, Education and sponsorship programs for the vulnerable children in Africa and South East Asia.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The Article 2) indicates that we must strive to respect children's right to have no discrimination against race, skin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view, ethnic/racial/social background, property, disability, by birth or social status.

Save the Children Korea spent KRW 6,287,129,248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in 2010.

해외보건의료 사업 International Health Program

말리의 5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사업

Scaling-Up Community-Based Infant Care Services, Yorosso District in Mali

국제빈곤퇴치기여금으로 2013년까지 진행되는 총 5개년 사업 중 제 2차년도 보건의료사업이 2010년 8월에 완료 되었습니다. 말리의 마레나(Marena), 카랑가나(Karangana)와 콤비아(Koombia) 지역에 지역보건센터 1개소와 모성병원 2개소를 건축했고, 수세시설 87개소를 설치했으며, 25개의 전통우물을 개선하고, 1개의 대형우물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232명의 지역보건의료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가자재 및 기본약품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비 959,734,094원 / 아동포함 참여인원 78,375명
Expenses KRW 959,734,094 / Beneficiaries 78,375

세계말리아의 날을 기념하여 모기장을 받은 모자



니제르 5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사업

Saving Children's lives in Niger

한국국제협력단(KOICA) 매칭펀드로 지원되는 본 사업은 니제르의 진더(Zinder) 지방 마타메(Matameye)와 마가리아(Magaria) 지역의 종합보건소 3곳과 지방보건소 17곳에 의료 기자재를 제공했고, 보건소 주변에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15개의 마을보건소에는 '물 저장시설'을 추가로 공급했습니다. 월 4회 마을 이동진료와 함께 예방백신의 운송과 냉장시설의 설치, 유지 및 보수 사업을 지원하여 16.5%였던 이 지역의 소아백신 예방접종률을 34%까지 올렸습니다(BCG접종률, 2010 니제르 MOH와 WHO 공동조사자료 근거). 보건의료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164개 교육지원 세트를 제작 지원하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조산사 양성교육으로 39명의 조산사를 육성했고, 136명을 대상으로 마을보건담당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사업비 164,426,000원 / 아동포함 참여인원 119,861명
Expenses KRW 164,426,000 / Beneficiaries 119,861

아버지의 인력거 | 아두리 가족 이야기

아두리(Aduri, 3세)는 태어나자마자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충분히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두리의 아버지는 하루에 10~20타카스(약 180~360원)를 벌었습니다. 아두리 가족은 방글라데시에서도 매우 빈곤한 지역인 쿠리그램(Kurigram) 카탈바리(Kathalbari)에 살고 있습니다. 세이브칠드런은 아두리의 가족에게 신용보증프로그램을 연결시켜주었고, 아두리의 아버지는 인력거(rikshaw-van)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작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두리의 아버지는 새로 산 인력거로 하루에 50~60타카스를 벌게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두리의 어머니는 아두리에게 매일 끼니를 챙겨줄 수 있었고, 우유와 다른 좋은 것들도 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두리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딸 아두리를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두리는 지금 활기 가득한 행복한 아이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래야 하듯이 말이죠."



니제르 염소지원 프로젝트

Provision of Goats for Recovery and Rehabilitation in Niger

아프리카 니제르의 식량위기 극복과 빈민계층의 경제활동을 돕고자 진더(Zinder)의 마가리아(Magaria) 지역에 이 지역에서 구하기 쉽고, 번식능력이 강한 붉은 염소(Chevres Rousses) 12,166마리를 지원했습니다. 모든 염소는 구충제와 예방주사를 맞았고, 1가구당 암염소 두 마리, 10가구당 숫염소 1마리를 지원 받았습니다. 18개월 후 늘어난 새끼염소 1~2마리는 비 지원 대상 가구에 양도했습니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올바른 염소 사육방법과 모범 사례 등을 교육했고, 지역개발위원회(Commune Development Committee)를 통해 기술적인 지원 및 모니터링도 실시했습니다.

사업비 556,842,402원 / 참여가구 5,793가구(마가리아 지역 3,110빈곤 가구 / 2,683최빈곤 가구)
Expenses KRW 556,842,402 / Beneficiaries 5,793 families
(3,110 poor families and 2,683 poorest families in Magaria)

라오스 루앙프라방 기초보건사업

Luang Prabang Primary Health Care (PHC) Program in Laos

한국국제협력단(KOICA) 매칭펀드로 지원되는 본 사업은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이 최하위 수준인 라오스에서도 가장 지원이 시급한 북부 산간 농촌인 루앙프라방(Luang Prabang)지역의 10개 마을을 25명의 의료진이 방문하여 1,000여 명의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 대한 기초보건 교육과 함께 라오스 의료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연수교육을 실시했으며, 신속한 이동진료와 응급시스템을 위해 차량을 제공했습니다.

사업비 319,725,130원 / 아동포함 참여인원 118,900명
Expenses KRW 319,725,130 / Beneficiaries 118,900

니제르(Niger) 염소지원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은 진더(Zinder)지역 아동들



라오스(Laos) 루앙프라방(Luang Prabang) 기초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오지마을 주민들을 직접찾아 이동진료를 실시하는 모습

아이티 기초보건서비스(모자보건) 지원사업

Primary Health Care with Focus on Maternal Health in Haiti

지진으로 인해 폐허가 된 아이티에 기초보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와 준비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신생아 및 산모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 23개월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률 증가, 보건시스템 강화, 가족계획 서비스의 질 향상, 직원역량 강화, 질병 감시체계 구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업비 637,712,688원
Expenses KRW 637,712,688

우즈베키스탄 기초보건사업

Primary Health Care Program, Yukorichirchik & Urtachirchik District in Uzbekistan
고려인 밀집 지역인 유카리치르치크(Yukorichirchik) 지역에서 기초보건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사전조사 및 사업장 설립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 대상 보건위생 및 가족계획 교육,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지역보건 인력 양성, 낙후된 보건의료시설의 개보수, 식수 및 화장실 설비, 보건 의료 기자재 및 의약품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122,921,964원
Expenses KRW 122,921,964

중국 북경 이주아동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보건위생 개선사업

Improving School Health and Hygiene for Migrant Children, Beijing in China

삼성생명 지원으로 북경의 이주아동 건강증진을 위해 해정구(Haidian District)와 석경산구(Shijingshan District)의 4개 학교 보건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고, 보건위생교육과 학생 신체검사를 실시했으며, 자원봉사단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비 79,161,753원 / 참여아동 지원건수 6,524명
Expenses KRW 79,161,753 / Beneficiaries 6,524

해외교육지원 사업 International Education Program

네팔 분쟁영향지역 아동교육 지원사업 (Rewrite the Future)

Rewrite the Future in Nepal

한국국제협력단(KOICA) 매칭펀드로 지원되는 본 사업은 분쟁영향지역 내 아동의 발달권 및 보호권을 실현하기 위해 양질의 교육제공 및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네팔 카필바스투(Kapilvastu) 및 바그룽(Baglung) 지역에서 학교등록 캠페인, 아동클럽 신설 및 활동 지원, 평화구역으로서 학교 선언, 대안학교 과정지원, 행동강령 제작지원, 출생신고 캠페인, 지역재난대비 훈련지원, 학교 건축지원 및 교사 대상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사업비 176,647,000원 / 참여아동 12,253명
Expenses KRW 176,647,000 / Beneficiaries 12,253



네팔(Nepal) 바그룽(Baglung)지역에서 교육키트를 받고 있는 부모들

새로 건립된 베트남(Vietnam) 티엔옌(Tien yen) 반부옹(Ban buong)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



45,652,933

2010년 세이브더칠드런은 코트디부아르 아동 교육사업에 45,652,933원을 사용했습니다.

캄보디아 쳇보리 지역 고아 및 취약아동 지원사업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Orphans and Vulnerable Children, Chitrac Borei District in Cambodia

태양세안 산업 지원으로 캄보디아에서도 가장 빈곤하고 외부의 지원이 미치지 않는 쳇보리(Chitrac Borei, 수도 프놈펜에서 북동쪽 340km) 지역의 고아 및 취약아동 800명에게 자전거 지원, 화장실 설치, 위생·보건교육 실시, 역할극 참여 등 아동들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보장을 위한 통합적인 교육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사업비 157,117,615원 / 참여아동 800명
Expenses KRW 157,117,615 / Beneficiaries 800

코트디부아르 분쟁 영향 아동 교육사업

Rewrite the Future Education Program in Côte d'Ivoire

2002년 발생한 코트디부아르 내전으로 70만 명 이상의 아동이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산 페드로(San Pedro) 지역 3개 정규학교 및 모노가가(Monogaga) 지역에 위치한 3개 비정규교육센터의 화장실건축, 운동장 복구, 급식시설 건축, 교실 건축 등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습도구 및 놀이도구 지원, 아동클럽을 세우고, 운영 교육 실시, 아동보호 활동을 시행했습니다.

사업비 45,652,933원 / 참여아동 1,362명
Expenses KRW 45,652,933 / Beneficiaries 1,362

방글라데시 사회소외계층 영유아개발센터 지원사업

Sustainable Infrastructure for Early Childhood Development of Socially Underprivileged Children in Bangladesh

방글라데시 4대 성매매 지역 중 한 곳인 라즈바리(Rajbari)의 아동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고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7월에 영유아발달센터(Early Childhood Development center) 완공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 기자재 확충과 하고 훈련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였으며, 이 지역 아동들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사업비 87,438,612원 / 참여아동 180명
Expenses KRW 87,438,612 / Beneficiaries 180

베트남 지구촌 희망학교 티엔옌 반부옹 학교 야외캠프활동 지원

Ban Bough School Construction Project in Vietnam

다음(DAUM)의 후원으로 건립된 베트남 티엔옌(Tien yen) 반부옹(Ban boung) 학교에 다음(DAUM) 임직원이 방문해 12월 2~4일 2박3일간 학생, 교사, 마을 주민들과 함께 미니올림픽, 베트남 전통음식 만들기, 전통놀이 배우기 등 다채로운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사업비 32,262,854원 / 참여인원 143명(학생 83명, 교사 10명, 마을 주민 50명)
Expenses KRW 32,262,854 / Beneficiaries 143 including 83 children, 10 teachers and 50 adults

스리랑카 핸포드 타밀 초등학교 증축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Creating a Child-friendly Learning Environment in Handford Tamil Kanishta Vidyalaya (Junior School) in Sri Lanka

아산재단 지원으로 스리랑카 마타라(Matara) 지구 핸포드 타밀(Handford Tamil) 학교의 낙후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4개의 교실을 증축해 학생 과밀을 해소했고, 책걸상 및 학습기자재를 지원했으며, 2칸의 화장실과 식수대를 증축하여 아동들의 보건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창고로 방치되어 있던 도서관을 보수하여 아동들이 실제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사업비 54,064,633원 / 참여아동 334명
Expenses KRW 54,064,63 / Beneficiaries 334

해외아동결연사업 International Child Sponsorship Program

아프리카의 말리와 에티오피아, 아시아의 네팔 및 방글라데시의 아동들이 자신의 삶과 미래를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후원자를 결연하고, 결연아동들에게 영유아기 발달 프로그램, 기초교육 프로그램, 학교보건 및 영양 프로그램, 청소년기 발달 프로그램, 경제활동 기회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사업비 2,099,544,671원 / 참여아동 11,900명
Expenses KRW 2,099,544,671 / Beneficiaries 11,900

북한사업 DPRK Program

북한 북동부지역 통합적 보건증진사업

Complementary Support to the Integrated Health Project in Northeast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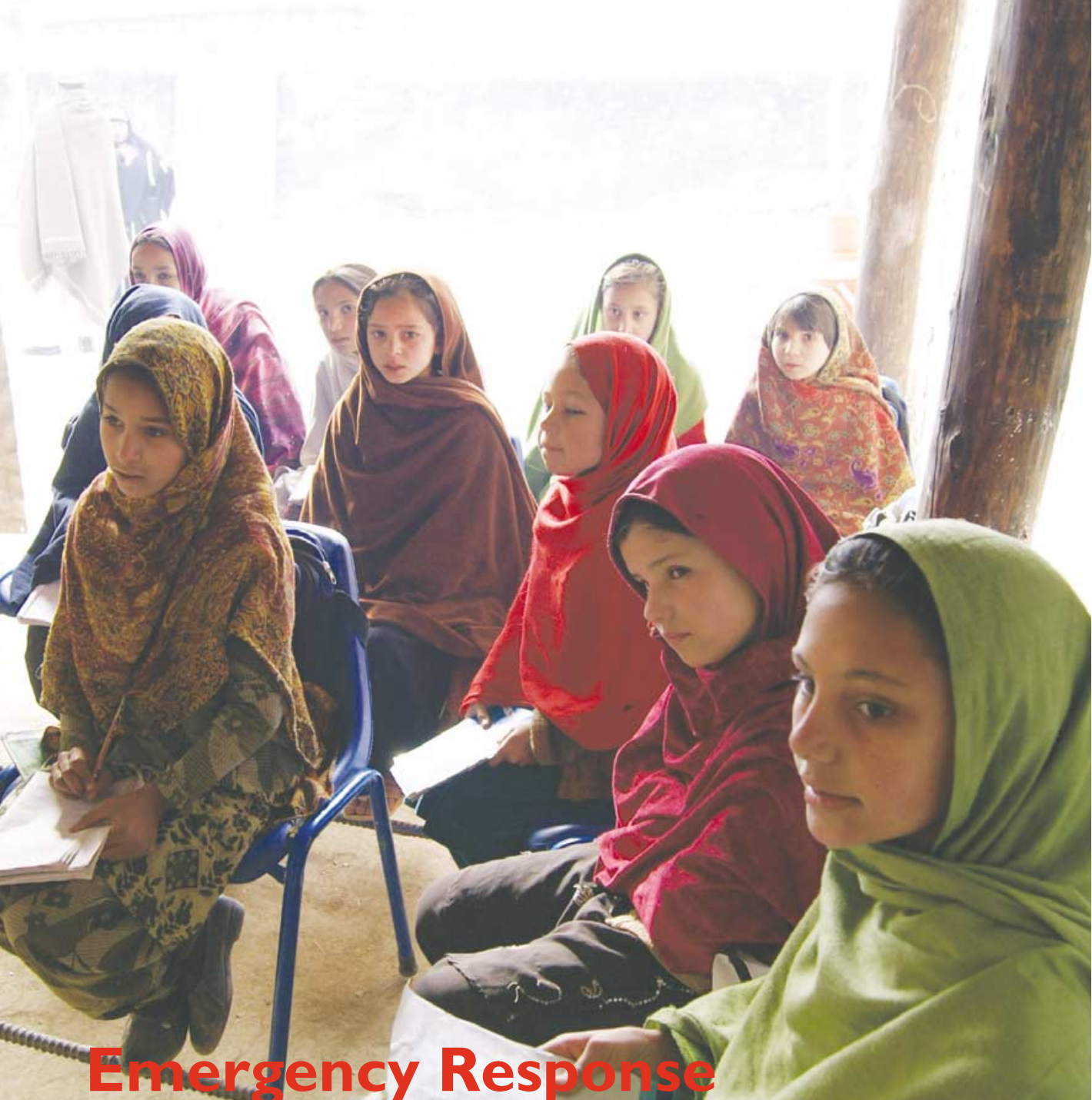
북한 북동부지역에 10개의 중력수지원시스템을 설치하여 가정과 주요시설에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청결한 위생시설과 오물관리를 위한 정화조 및 공공화장실을 건립했습니다.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위생·보건교육을 실시했으며, 14개의 아동복지소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사업비 300,036,900원 / 아동 포함 참여인원 100,000명
Expenses KRW 300,036,900 / Beneficiaries 100,000



말리(Mali)의 결연프로그램, 학교보건 및 영양 프로그램 관리자인 세이부 디아라(Seybou Diarra) 박사 선생님의 등장은 어린이들에게 항상 신나는 순간

네팔(Nepal)에서 결연프로그램의 지원으로 영유아발달센터에 다니고 있는 니키타(Nikita, 4세)



Emergency Response

긴급구호사업

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는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교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뿐 아니라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에 기반하여 긴급구호 상황에서 아동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긴급구호 발생 후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장하고 조속한 일상으로의 복귀와 인간으로써의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 세이브더칠드런은 긴급구호 사업에 총 480,431,310원의 기금을 사용하였습니다.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The Article 6) indicates that we must strive to realize children's right to survival and development with every possible ways and means. Save the Children is committed to reducing children's vulnerability to emergencies, ensuring their right to survival and development after an emergency and providing the support they and their families need to quickly recover and re-establish their lives, dignity and livelihoods.

Save the children Korea spent KRW 480,431,310 for Emergency Response in 2010.



아이티 대지진 긴급구호

Haiti Earthquake Emergency Response

진도 7.0의 지진이 강타한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Port-au-Prince) 및 레오간(Leogane), 자크멜(Jackmel), 마이사드(Maisad)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아동과 가족을 위해 이동진료소를 설치하고, 산모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보건영양 사업을 펼쳤습니다. 아동친화공간(Child Friendly Spaces) 운영과 스쿨키트 제공, 교사연수 등의 교육 사업에 힘썼고, 지진 및 허리케인에 대비한 특수설계 학교 아벨라르(The Institute Abellard school)를 건축했습니다. 또한 2010년 말 발생한 콜레라에 대비하여 위생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09,465,507원

Expenses KRW 309,465,507



몽골 혹한 긴급구호

Mongolia Dzdud Emergency Response

영하 40도 이하의 혹한으로 가축 수백만 마리가 죽고, 식량 및 연료 부족으로 어린이들의 생명조차 위협받는 상황에서 몽골 자브항(Zavkhan), 고비-알타이(Gobi-Altai) 등 혹한 피해지역의 가정에 긴급구호 식량과 위생키트, 담요를 제공하고, 학교와 기숙사의 난방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사업비 11,448,989원

Expenses KRW 11,448,989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티(Haiti) 에디 파스칼(Eddy Pascal)초등학교 1학년생인 미엘이치(Mihelitchy)

몽골(Mongolia) 혹한지역에 식량 및 위생키트를 배포하는 세이브더칠드런

니제르 식량위기 긴급구호

Niger Food Crisis Emergency Response

심각한 기아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니제르의 마라디(Maradi), 디파(Difa)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식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 식량을 배분하고, 중증영양실조에 걸린 영유아를 위한 집중치료센터(CREN)의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특별히 2세 미만 아동들에게는 식량과 함께 담요를 지급했으며, 말라리아에 걸린 아동을 치료하고, 아동 긴급구호를 위해 니제르 정부에 현금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니제르의 곡식 수확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심각한 영양 부족문제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22,967,004원

Expenses KRW 22,967,004

파키스탄 홍수 긴급구호

Pakistan Monsoon Floods Emergency Response

대홍수로 인해 2,00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파키스탄의 신드(Sindh)주 수쿠르(Sukkur)와 시카루푸르(Shikarpur) 지역의 취약 가정과 아동들에게 식량과 위생키트 등을 제공하고, 보건영양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아동친화공간(Child Friendly Space)에서는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아동들이 안전하게 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을 펼쳤습니다.

사업비 136,549,810원

Expenses KRW 136,549,810

세이브더칠드런은 긴급구호 사업장에서 전 세계 회원국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내셔널은 아이티 870,000명, 몽골 78,000명, 니제르 136,000명, 파키스탄 2,600,000명의 아동과 가족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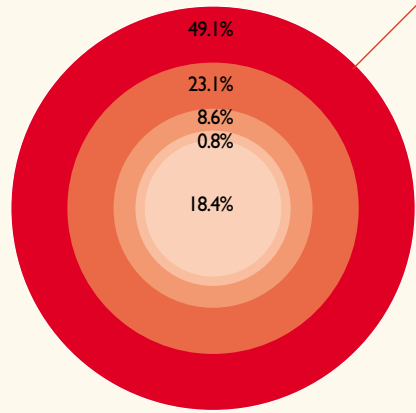
2010년 재정보고 Financial Report for Year 2010

세이브더칠드런은 개인과 기업, 정부와 같은 다양한 후원자들의 도움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후원자들에게 받은 귀중한 후원금은 국내외 아동을 위해 값지게 쓰이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모든 후원금 집행에 있어 투명한 살림살이 운영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가장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0년 한 해 동안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ave the Children is working with various donors like individuals, corporations and government who support with most valuable gifts for children in need. Save the Children remains committed to running a fiscally accountable organization, growing revenue and reserves, and living within our means in order to serve children now and well into the future. Save the Children is grateful to our donors for their compassion and generosity in supporting the organization's efforts for children and their fami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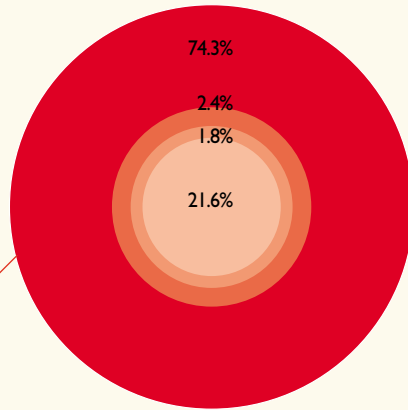
단위:천원 Unit: KRW 1,000

수입 Income



	단위:천원	
후원금 Donation Income	17,584,981	49.1%
보조금 Grants	8,289,151	23.1%
사업수입 Business Income	3,075,588	8.6%
기타접수입 Misc. Income	292,531	0.8%
전기사업이월금 Carried Over	6,607,245	18.4%
합계 Income Total	35,849,49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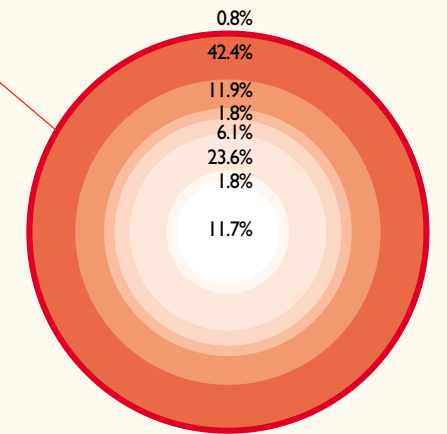
지출 Expenses



	단위:천원	
사업비 Program Services	26,631,694	74.3%
재산조성비 Equipment & Facilities	852,583	2.4%
사무비 Operating Expenses	629,258	1.8%
잡지출 Misc. Expenses	2,340	0.0%
차기사업이월금 Carried Over	7,733,621	21.6%
합계 Expenses Total	35,849,496	100.0%

사업비 내역 Program Services

	단위:천원	
아동권리교육 및 옹호 Child Rights Advocacy	211,669	0.8%
아동발달 및 교육 Child Development & Education	11,281,365	42.4%
아동보호 Child Protection	3,169,524	11.9%
다문화 Multicultural Empowerment	467,380	1.8%
아동보건의료 Child Health & Medical Support	1,619,734	6.1%
국제개발 International Development	6,287,129	23.6%
긴급구호 Emergency Response	480,431	1.8%
기타사업 Misc. Programs	3,114,462	11.7%
합계 Program Total	26,631,694	100.0%



아동권리교육 및 옹호

Child Rights Advocacy

아동권리캠페인 / 교육 및 옹호사업

아동발달 및 교육

Child Development & Education

저소득·맞벌이가정 영유아 보육 / 저소득 아동청소년 및 가족지원사업 / 국내아동결연사업 / 착한 도시락 - 영양 밥상 / Change the Future (빈곤아동 성장발달을 위한 통합지원 사업) / 아동긴급지원사업

아동보호

Child Protection

아동학대 예방치료사업 / 가정위탁 지원사업

다문화

Multicultural Empowerment

유아 이중언어지원사업 / 하나 키즈오브아시아

아동보건의료

Child Health & Medical Support

국내아동 의료비 지원 / 소액의료비 지원 / 이주아동 의료비 지원 / 저소득층 심리정서장애아동 심리치료 지원 / 해외 선천성심장병 아동 현지·초청 수술 / 해외 의료진 연수사업

국제개발

International Development

해외보건사업 / 해외교육사업 / 해외아동결연사업 / 북한사업

긴급구호

Emergency Response

식량, 식수 및 위생, 보호, 교육, 생계지원

기타사업

Misc. Programs

홍보 / 후원개발 / 후원관리 / 직원역량강화사업 등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한 사람들 People of the Year

2010년 한 해에도 전 세계 아동들을 위해 일하는 세이브더칠드런의 뜻에 함께 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다양한 활동에 소중한 시간과 재능, 마음을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우리 어른들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후원회장 최선규 아나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린이들 가운데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옷이 없어서 춥고, 못 배워서 무시당하는 어린이들을 최소화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함께 물질과 마음을 모아주시는 후원자 여러분의 고귀한 뜻을 세이브더칠드런은 헛되지 하지 않겠습니다.”

최선규 후원회장은 '빈곤아동의료지원사업'을 위한 GS홈쇼핑 후원방송의 공동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2010년에도 최선규 후원회장의 안내로 많은 분들이 의료비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알게 되고 그 뜻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
아기들의 생명과 희망을
살릴 수 있습니다

홍보대사 김윤아 · 김형규 부부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지만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먼 나라, 에티오피아, 말리, 또 네팔에 있는 신생아들은 일교차와 아주 사소한 이유 때문에 생명을 잃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들의 희망과 관심과 도움이 있다면 어려움에 처한 아기들의 생명과 희망을 살릴 수 있습니다.”

2009년 12월부터 지구촌 5세 미만 영유아살리기 EVERY ONE 캠페인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윤아 · 김형규 부부는 신생아살리기 모자뜨기캠페인 시즌4 론칭행사에서 전세계 신생아와 영유아가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홍보영상 촬영 및 트위터 활동 등을 통해 세이브더칠드런의 캠페인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
한 땀 한 땀
소중하고 기쁜 마음으로

홍보대사 방송인 박경림

“뜨개질은 당연히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모자뜨기와 일반적인 뜨개질이 조금 다른 점은, 목도리를 뜰 때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이 모자는 한 땀 한 땀 소중하고 기쁜 마음이 든다는 점입니다. 같은 일이라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소중한 일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꾸준히 세이브더칠드런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방송인 박경림씨는 12월, 바쁘신 가운데 신생아살리기 모자뜨기캠페인 시즌4 현장을 방문하여 한 아이(민준)의 엄마로서 많은 분들께 모자뜨기캠페인을 알리는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
더 이상 아이들이
생명을 잃은 일이 없었으면

가수 이은미

“지구 반대편 니제르라는 나라에서는 5명 중 1명이 5살도 채 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니제르에 염소를 보내줌으로써 더 이상 아이들이 생명을 잃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수 이은미씨는 9월부터 12월까지 이은미콘서트 전국투어를 통해 식량부족으로 긴급구호가 발령된 니제르의 어린이들이 처한 현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주셨습니다. '아프리카에 염소보내기 희망 릴레이'와 함께 하면 염소젖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영양소와 단백질이 보충되고, 염소 새끼는 이웃마을에 전달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으로 관객들의 기부참여를 격려했습니다.



“
한 사람의 관심은
한 아이의 기쁨입니다

SBS 희망TV · 탤런트 윤소이

“지금 이 순간 니제르에서는 어린 아이 5명 중 1명이 배고픔을 호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니제르에 염소를 보내주세요. 가난한 가족의 생계수단이 될 수 있는 염소 한 마리는 굶주린 아이들 4명에게 매일 신선한 우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관심은 한 아이의 기쁨입니다. 니제르에 염소를 보내주세요.”

탤런트 윤소이씨는 물가급등과 가뭄으로 인해 식량난에 고통 받고 있는 니제르를 위해 염소보내기 캠페인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많은 이들의 참여를 격려했던 윤소이씨의 도움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은 니제르의 어린이들에게 신선한 우유를 제공하고 가정에 생계수단을 지원하는 염소를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
꿈을
향해 도전하라

가수 애프터스쿨

“어릴 때부터 꿈이 가수였습니다. 이 세상에 노력을 이기는 재능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다해 달려가고 끊임없이 노력하길 바랍니다.”

애프터스쿨은 2010년 8월 27일 경기도 용인 현재기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세잎클로버찾기 희망캠프'에 참석하여 자신들의 성장과정을 토대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애프터스쿨은 이 자리에서 캠프에 참여한 교통사고유자녀들에게 “꿈을 향해 도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브런치파티 행사의 수익금을 국내빈곤가정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후원하였고, 신생아살리기 모자뜨기캠페인에도 참여하여 저개발국 아동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도 함께 해 주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후원자 Supporters : Individual/Group/Corporation

세이브더칠드런의 캠페인과 사업을 지지해주시는 모든 후원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의 관심과 지원은 전세계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권리를 지켜주는 든직한 울타리가 됩니다.

기업 및 단체 (총 284단체)

국내사업후원

가이드치과, 건국대학교부동산대학원, 골드신우회, 그라비티, 근해1004, 근화모피, 기아자동차, 김&장법률사무소, 김정은알로에, 꿈꾸는사람들, 대교차이홍중국어, 도이치은행서울지점, 동부생명, 동아오츠카, 동양목재상사, 러프디자인, 레드클라우드, 롯데마트, 리드팜, 머크주식회사, 모네오, 미래신택, 베인앤드컴퍼니, BC카드사랑나눔회, 사노피아벤티스, 사랑의하모니, 산은금융그룹, 살시뮤지컬M-star, 삼성생명, 삼성생명퇴직계정운용부, 서울서병원약사회, 서울YMCA강남지회, 세안산업, 스웨덴스동호회바다찾집, 승일, 신세계인터내셔널, 신앙엔지니어링, 아모레퍼시픽, 아이템베이, 아주복지재단, 안전회계법인, 알리안츠생명, 애경, 애프터스쿨, 에듀하우스, 에스원, 에트넷아이티, 엔제리너스, 엔트리커뮤니케이션, 엘지생활건강, 엘피커뮤니케이션, 오츠카제약, 와이즈넷, 융산고등학교총동창회, 우리들나눔회, 우리피앤씨, (주)윈포넷, (주)유니살테크놀로지, 유한킴벌리, 유한화학산신, 이광주복, (주)이래CS, 인천국제공항공사, 인하대학교여직원회, 종근당, 주성엔지니어링(주), 중앙대학교교직원회, 진로여직원회, 태양산업, 티엘아이, 파스텔뮤직, 피엠시프로덕션(난타), 하나대투증권다소동호회, 하나종합금융, 한국내소날인스트루먼트, 한국백퀴리그룹,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보통신, 한국코스틱, 한국폼텍, 한사랑회, 한샘한울터리, 한진해운이웃사랑회, 한춘, 헤비리프트코리아, 현대자동차, AVCPartner, BC카드, BCFKorea, GS SHOP, GS건설, GS넷비전, GS리테일, KOTRA, OCI, SBS영웅호걸팀

해외사업후원

GS SHOP, 겐조코리아, 광진구자원봉사센터, 국민카드, 노를업스카우트, 농협중앙회, 다름커뮤니케이션, 도서출판한울, (주)디아이디, 롯데쇼핑주식회사롯데마트, 메리츠화재, 베버텔존, 보나요비, 불가리, BC카드, 비아복,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삼성물산(주)건설부문, 삼성엔지니어링(주), 삼성전자(반도체), 삼성전자양, 삼성전자DigitalCity, 삼성전자(주), 삼성카드, 삼성테크윈, 서울꿈나무마을, 서울메트로수정회, 성주재단, 세림복지재단, 세안산업, 신한은행, 신한은행캐포스, 씨제이아이온, 아모레퍼시픽, 아산사회복지재단, 와이페이모어, 연대생활환경대,

(주)엑스포라인, 유한킴벌리, 음악저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사랑회, 인텔코리아, 조권기인(아담부부)팬모임, 종근당, 스테일러코리아, 중소기업진흥공단사랑나눔회(여성직원회), (주)지엔텍, 창신교회청년부, 태시스템, 태양산업, 파리바게트, 파리크라상, 파스쿠찌, 퍼시픽에어, (주)포스코 해외이동후원회, 풀리플리, 한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화천청소년수련관, AIA생명, ArtRoad77, ENW, GKL, (주)KTCS, LG넥스원, Love&Charity Fund, PCA생명, PRONE, SBS희망TV

긴급구조후원

국방부 한울회, 공동육아외국동체교육, 굿네이버스(주), 기쁨소식교회, 넘쳐교회, 노를업스카우트, 동방신기팬, 리바이스트라우코리아, 마포구보육시설연합회, 박재범설겅이, 배상면주가, 법무법인한중여의도, 보스턴컨설팅, 부천세종병원, BC카드, 사회복지법인방산복지재단, 산미루서신, 상동화(주), 서울후암동금성, 성모기사회, (주)세화상사, 신한금융그룹, 싸이버로지텍(이합사), 아이네임즈, 아인스시스템, 어린이어깨동무, 여성신문, 와이비엠에듀케이션, 와이즈넷, 우주보온공업(주), (재)울촌재단, 은명교회,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주)이파피루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간호사협의회, 자콤인터내셔널, 정선전기(주), 투비에이스, 파스쿠찌, 파파프로덕션, (주)페이퍼프로덕션, 피아니아협회, 한양대학교회, 해외원조단체협의회, 헤브앤비, 현대백화점, GS리테일, NHN GAME, PLUR, QM Club

일반후원

관악서울치과, 국민은행광흥창지점, 국제보건의료재단, 금화PSC, 농협, 높은뜻광성교회, 대철철강, 동국대학교부속유치원, 동양구조ENR, (주)디에스, (주)디에스리워드, 럭셔리걸2, 레드클라우드, 리바이스키즈, 매일유업, 메트라이프프라임지점, (주)무진종합건설, 미래에셋증권EquityTrading본부, (주)부천, 비룡소, 사우회 (홍성무), 서울국제학교, 서울대청량회, 세무법인정우, (주)수영피엔에스, 신사동교회, 신우벤틱, 신한카드, 아이스튜디오, 아주복지재단, 아트프라자, 앤일캐피탈(주), 연세대AMP, 유리지산운용(주), 윤진산업운영, 재단법인추강문화재단, (주)정일감정평가법인, 조양정밀공업(주), 주식회사에니디앤지, (주)필름나라, 중대노조, 중외제약, 책고르기, 케이투코리아, 코로나이즈, 코아에프지(주), 코엑스, 클렉스, 파코리반, 하나은행임직원, 하나은행(신사지점), 하나카드, 한국그린캠, 한국무역협회전시장, 한국쌀마스터, 한국은행, 한국SGI, 한양대AMP, 한진KSP영흥사업소, 해태제과, 행정고시합격자, 현대산업, 혜원의료재단, 혜원의료재단(엔젤), 호텔서교, ooooo매플(최영아), GS25, ROTC안산지회

개인 (총 96명, 200만원 이상 후원자)

강길원, 강동민, 고영미, 곽영미, 권오용, 권필석(박세은), 김경미, 김경수, 김규하, 김덕은, 김문희, 김미라, 김상희, 김영주, 김영진, 김용직, 김용택, 김은서, 김정균, 김정현, 김주원, 김준호, 김태진, 김한, 남윤선, 노정민, 노해철, 도란술, 목영준, 문상준, 민경일, 민지성, 박경림(Good Fellow), 박만원, 박성찬, 박순자, 박원형, 박재범, 박정윤, 배병관, 서경원, 서정원, 설용수, 성순자, 신수진, 신재선, 신정인, 신현주, 신희원, 안기식, 양동혁, 오지현, 원미경, 윤미정, 윤수현, 윤용혁, 윤인철, 이경아, 이관주, 이동진, 이명성, 이문수, 이병길, 이상엽, 이승철, 이영환, 이정현, 이해옥, 임근영, 임성호, 임연희, 장혜영, 정대영, 정두연, 정예은, 정지영, 정현영, 정혜성, 조병관, 조은성, 조준기, 주시영, 진영진, 진영진, 최강릉, 최락진, 최선규, 최수현, 최우창/한인경, 최은경, 최은혜, 한상우, 한학수, 한혜자, 황상준, 황우빈, 황지연

재능 기부 (총 25명)

전략컨설팅 보스턴 컨설팅 그룹 / 법률자문 김&장 법률사무소 / 강연 및 기고 김용택 / 사진촬영 한금선, 한승연 / 디자인, 동영상, 일러스트레이션 즐라이모닝, 레오버넷, 박현웅, 이현정, 김진성, 이병길, 이종원, 성원선, 손성, 김빛나, 선영은, 임선형, 임은하, 임정화, 조수원, 홍기화, 황수현, 이승은 / 광고지면기부 조선일보더나은미래섹션, 경향신문 /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이럽스

물품 기부 (총 32명)

김정현, (주)스테일러 코리아, 나우엠앤터, (주)씨이에스 컨설팅앤드미디어, 디에스마리, (주)원어데이, 레드클라우드, (주)웰팜, 리바이스 키즈, (주)유니와이드, 미랑, ㈜유유, 베이비슈, (주)제중상사, 시종민, (주)책고르기, 상상의 날개, 지앤비(신성), 세아상역(주), 지에스인터내셔널, 인천문구센터, 코로나이즈, 자연원, 파코리반 성남, 제우스상사, 편안편, (주)롯데리아, 하트케어주식회사, (주)무아레, 해동글로벌, (주)블루케어, Ground Wave

이 외에도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205,431 명의 후원자님과 자원봉사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복이 태어나는 곳
그리고
행복이 자라나는 곳

가족
당신이 행복입니다

OK! SK

